

정부, 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키로

전기·자율주행차와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투자 집중... 3000억 자금 조성

정부가 전기·자율주행차와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을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자율주행차 등 성장 가능성과 국민 체감이 높은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후속 프로젝트도 지속 발굴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 선도 프

로젝트에 우선 착수하기로 했다.

자율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 기업에 기술보증을 활용해 사업화 자금 저리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5대 선도 프로젝트의 일련 기술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9대 핵심부품 기술 개발에 5년간 1445억원, IoT에 120억원이 투입된다.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성장 주체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산업부

는 매출 1조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80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R&D 지원과 지역거점 기업 육성 및 성장친화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기업 대상으로 현장 규제예로를 발굴해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 확인 및 조기 시장창출을 유도하는 실증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제 신설이 추진된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 차원의 '실물경제 투자지원 TF(가칭)'

을 구성,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집중 관리한다. 개별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는 범정부 '투자촉진 TF' 중심으로 입지·도로·전력·유수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 관점에서 선제적 구조조정 노력도 강화한다.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시 경쟁력 분석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의 협업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은행,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교육부장관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최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1층에서 열린 '2017 제6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이 시상식은 교육나눔 문화에 기여한 기업, 공공기관, 대학, 개인 등을 포상해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제정됐다.

전북은행은 임직원의 재능기부와 회사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 초·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 교육환경개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다양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그간 전북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본점 로비에 환상의 동화속 산타마을을 조성해 지역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JB윈터랜드' 행사와 저소득가정이나 복지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학습공간을 마련해주는 'JB희망의 공부방' 사업을 펼쳐왔다.

또 임직원이 소외계층 아동의 멘토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JB멘토링문화체험'과 'JB금융경제캠프' 등의 활동도 전개해왔다.

전북은행 김병용 부행장은 "교육은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올 연말, 가족들과 함께 설원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마술·댄스·불꽃놀이 등 진행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동계 스포츠의 메카 부영그룹 계열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 김시권)가 다가오는 송년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즐겁고 뜻 깊은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스키장에 서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24일과 31일 오후 12시부터 16시까지는 두 명의 마술사가 리조트 단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클로즈업 체인지 백 마술을 선보인다. 리조트에서 이용한 영수증을 마술사에게 보여주면 눈앞에서 영수증이 사탕으로 변하는 신기한 마술이 펼쳐진다.

밤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는 만선하우스 베이스 특설무대에서 입담 좋은 MC의 레크레이션과 K-POP 여성 댄스팀 공연과 국내 최정성급 B-Boy 공연, 그리고 스키장

에서만 볼 수 있는 전광판 프리포즈, 정설차 포메이션, 스키 포메이션, 핫볼스키와 은빛 설원위를 화려하게 물들이는 환상적인 불꽃놀이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산타 이벤트가 펼쳐지고, 2018년 1월 1일 단 하루 덕유산 정상에서 맞이하는 해맞이 콘도라를 운영한다.

단 20분의 새벽 산행으로 해발 1,614m 덕유산 정상에서 신년을 맞이할 수 있는 해맞이 콘도라는 새벽 6시부터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322-9000) 또는 홈페이지(www.mdysresort.com)를 참조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농업용수공급 이상無"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신교준)가 18일 현재 공사 관리 저수지 62개소의 평균 저수율이 75.7%로 평년 70.5% 대비 107.4% 수준으로 내년 농업용수 공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무진장지사는 용림저수지 등 10개소에 특농기사를 실시하여 저수량 1815만8000㎥를 추가 확보하여 17년 극심한 가뭄에도 단 한건의 피

해 없이 성공적으로 영농기를 마무리했다.

신교준 지사장은 "현재 농업용수가 충분히 담수되어 있어 내년 영농급수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상기후에 대비해 저수를 모니터링 등 효율적인 용수관리를 통하여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롯데백 전주, 지진 피해 돕기 포항 특산물전 진행

지난달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경북 포항지역의 경제가 직격탄을 맞음에 따라 관료확보를 위해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백 전주점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생산자를 돕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농·축·수산물 산지직송 직거래 장터 '포항 특산물전'을 특산물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항 경제가 조기에 정상 회복을 꾀하고 국민들도 두려움 없이 포항을 다시 방문해 지역의 상품을 더 많이 애용해 주길 바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포항 특산물전은 포항축협, 공동어시장, 생산농가와 연계, 농·수산물 산지직송 직거래를 통해



포항의 특산물 과메기, 문어, 가지미, 대게, 홍게, 대구, 고등어, 포항초, 건 패지감자, 건어주 등 총 20여개의 상품을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식품 박성진 플러머장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를 도와 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글로벌 시장 진출역량 강화

전북중소벤처기업청, 20일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오는 20일 전주 트윈호텔에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해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창업 태동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수출확대 성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로 중국, 인도, 터키, 일본, 미얀마, 미국 등 13개 국가의 식품, 가공식품, 이·미용, 생활용품, 전기전자, 건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개사 내외의 바이어를 초청해, (예비)창업기업과 1:1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각 나라별 해외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을 파악하여 초기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행사를 위해 사전에 초청장 발송

을 통해 해외바이어를 확보해 모집했고, 참가기업 상품 소개자료 등을 전달하여 창업기업과 상담 매칭을 진행했으며, 이에 참여하는 바이어에게는 일부 항공비를 지원한다.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는 기술·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고경력 퇴직 인력과 청년의 아이디어, 기술을 매칭하여 역량있는 창업팀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투자, 보육,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

김광재 청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해외바이어와 초기창업기업이 실질적인 사업 파트너로서 자리잡게 되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고 수출확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세대융합 창업팀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창업에 도전하여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기사제보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